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식품기업,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만 톤 확정

거시경제 동향

2012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KREI 리포터)

차기 정부에 바라는 농업정책
쌀·과일 수확 현황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 양 분 석 실

주요 농정 이슈_1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 본 자료는 10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 배경

- 김장배추와 무는 태풍영향 등으로 **평년대비 생산량이 부족**하나, 양념류인 **고추와 마늘은 수요량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배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5% 정도 감소**한 1,348천 톤, 무는 **20% 감소**한 459천 톤 수준으로 예상
 - ※ 생산전망: (배추) 1,348천 톤(평년 1,425천 톤), (무) 459천 톤(평년 573천 톤)
 - **고추와 마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평년수준 전망**
 - ※ 고추: (평년) 112천 톤 → ('11) 77천 톤 → ('12) 100천 톤~110천 톤(평년대비 △10.7~△1.8%)
 - ※ 마늘: (평년) 333천 톤 → ('11) 295천 톤 → ('12) 339천 톤(평년대비 1.8%증)
- 배추의 경우, 정식시기 지연 등으로 김장 초기단계 공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김장 성수품목을 중심으로 수급상황 집중 관리 필요

□ 주요 내용

- 배추·무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김장채소 주산지 27개 시·군**에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10월~11월)하여 생육촉진 등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
- 김장초기 가격 상승에 대비, 10월에 생산되는 **준고랭지배추를 수매·비축하여 소매시장 중심으로 공급**
- 금년도 재배면적이 증가한 **겨울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을 평시보다 1개월 앞당겨 출하**
 - ※ 계약재배 물량: ('11) 42천 톤 → ('12목표) 120천 톤(현재 47천 톤 계약)
 - ※ 12월 조기출하 가능량: (겨울배추) 870ha, 83천 톤 / (월동무) 300ha, 18천 톤

-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추와 마늘을 방출**하여 공급물량을 확대
 - ※ 건고추: 1,693톤(국산 1,000톤, 수입산 693), 주당 200~300톤 수준 방출
 - ※ 마늘: 4,556톤(국산 2,284톤, 수입산 2,272), 주당 600톤 수준 방출
- **주거밀집지역 등에 임시김장시장을 개설**(‘11년 60개소→’12년 100)하여 **10~20% 저렴하게 공급**
 - 농협 김치공장을 중심으로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적극 추진, 시장 가격에 변동 없이 고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
-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김장 늦춰담기”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기 위해 시장별 김장비용도 조사·공개
- 유통·가공 업계의 소비동향, 산지의 생산동향 등 수급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주요 농정 이슈2

식품기업,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만 톤 확정

※ 본 자료는 10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식품기업,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만 톤 확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 (목적)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업체(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
-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10.4.14 시행)
 - ※ 기본법 제42조, 제44조, 시행령 제26조~제35조
- (제도 운영 체계)
 - 총괄기관(환경부): 총괄·조정, 기준·지침 제정, 관장기관 점검·평가 등
 -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관리업체별 목표설정, 이행지원, 평가 등
 - ※ 관장기관: 농식품부(농업·축산), 지경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부(건물·교통)

□ 식품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체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09.11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11.7월)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전환·수송·건물·농림어업 등 부문별 목표와 부문내 세부 업종별 감축 목표 설정
 - **식품 업종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5.0% 감축**
-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감축대상년도 직전년도 9~10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들에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점검

-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목표관리제 감축대상 **업체의 감축 목표 설정**

□ 식품부문 26개 관리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 26개 식품업체의 **2013년 예상배출량은 2,685천CO₂톤**이고, **배출허용량은 40천CO₂톤**(감축률 1.49%)을 감축한 **2,645천CO₂톤**으로 결정
- **2013년 감축목표량**(40천CO₂톤)은 **2012년**(24천CO₂톤)에 **비해 1.7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며, **감축률**(1.49%)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전체 감축률(3.02%)에 비해 낮은 수준**

〈식료품 부문 2013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천CO₂톤

부 문	2011년 배출량	2013년 예상배출량	감축률(%)	감축량	2013년 배출허용량
식료품	2,429	2,685	1.49	40	2,645
총 계	546,606	589,778	3.02	17,831	571,947

-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관리업체는 지난 2011년 6월에 지정되었으며 과거 3년간('08~'10) 평균이 ▲업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CO₂톤,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천CO₂톤,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인 기업임.

※ 2013년 농업·축산·식품분야 감축목표 설정 관리업체 현황은 부록 참조

부록

<2013년 농업·축산·식품분야 감축목표 설정 관리업체>

번호	관리업체	비고	번호	관리업체	비고
1	(주) 농심	업체	14	(주)삼립식품	사업장
2	대상(주)	업체	15	서영주정(주)	사업장
3	동서식품(주)	업체	16	오뚜기라면(주)	사업장
4	(주)삼양사	업체	17	오비맥주(주) 이천공장	사업장
5	(주)삼양제넥스	업체	18	오비맥주(주) 청원공장	사업장
6	하이트진로(주)	업체	19	(유)콘프로덕츠코리아 부평공장	사업장
7	CJ제일제당(주)	업체	20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사업장
8	남양유업(주) 세종공장	사업장	21	(주)MSC	사업장
9	대한제당(주)	사업장	22	(주)진로발효	사업장
10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사업장	23	(주)창해에탄올	사업장
11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사업장	24	풍국주정공업(주)	사업장
12	롯데칠성음료(주)군산	사업장	25	(주)하림	사업장
13	매일유업(주)	사업장	26	한국네슬레(주)	사업장

주: 업체기준 관리업체 7개, 사업장 기준 관리업체 19개

거시경제 동향

2012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10월 1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2012년 9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1.9%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5.2% 하락(전년 동월대비 11.7%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하락	참치 -3.6, 오징어 -1.7		참치 -9.2, 오징어 -20.9, 김 -2.4	
	상승	김 0.5, 조개 2.4		조개 3.3	

- 공산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전기장비제품이 내렸으나 석유화학·고무제품, 1차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전년 동월대비 1.9% 하락)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6월	7월	8월	9월	'12.6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00.0	-1.6	-1.3	0.2	0.3	2.2	2.2	1.1	-1.9
		<-2.5>	<0.7>	<1.2>	<0.6>	<-4.4>	<-4.4>	<-3.1>	<-2.0>
농림수산물	5.1	1.8	-0.5	-0.9	-5.2	3.6	13.1	-0.5	-11.7
공 산 품	994.9	-1.6	-1.3	0.2	0.3	2.2	2.1	1.1	-1.9
석유화학·고무제품	193.1	-6.9	0.9	3.5	1.1	-3.0	-1.5	1.1	-1.6
1차금속제품	72.8	-0.8	-2.9	-1.9	1.1	-3.9	-5.3	-9.1	-9.6
일반기계·장비제품	66.6	0.9	-2.2	-0.5	0.3	8.6	8.5	6.0	2.6
전기장비제품	53.8	0.4	-1.6	-1.0	-0.3	3.5	1.1	0.6	-1.7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361.5	1.1	-1.5	-1.5	-0.6	3.6	4.2	2.0	-1.4
운송장비제품	144.4	1.0	-2.7	-0.9	0.2	6.7	5.8	3.5	-0.1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수입물가지수

- 2012년 9월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9%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2.4% 하락
- 원자재: 옥수수, 천연고무 등 농림수산품은 내렸으나 원유, 동광석 등 광산품 가격이 올라 전월대비 0.9% 상승(전년 동월대비 0.2% 하락)
-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2% 하락(전년 동월대비 9.2%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하락	옥수수 -2.6, 천연고무 -5.1, 대두 -2.3, 원면 -1.4, 양모 -0.9		천연고무 -39.9, 옥수수 -8.3, 원면 -20.9, 양모 -15.0, 미송원목 -8.3	
	상승	밀 0.9, 쇠고기 2.4, 돼지고기 3.1		밀 6.7, 대두 20.5	

- 중간재: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1차 철강제품은 내렸으나 1차 비철금속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9% 상승(전년 동월대비 4.7% 하락)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6월	7월	8월	9월	'12.6월	7월	8월	9월
총 지 수	1000.0	-3.6	-0.8	1.7	0.9	-1.2	-1.0	0.3	-2.4
		<-4.6>	<1.1>	<2.8>	<1.4>	<-8.0>	<-7.8>	<-4.2>	<-2.5>
원 자 재	278.2	-6.7	0.7	4.6	0.9	-3.2	-2.2	2.9	-0.2
농림수산물	30.2	-1.7	-0.8	1.7	-1.2	-8.8	-5.3	-5.7	-9.2
광 산 품	248.0	-7.2	0.9	4.9	1.1	-2.6	-1.9	3.9	0.8
중 간 재	556.7	-1.9	-1.7	-0.3	0.9	-0.9	-1.0	-2.3	-4.7
석유제품	34.8	-14.8	5.0	11.7	4.2	-12.2	-8.1	3.5	3.7
화학제품	87.4	-2.1	-2.6	0.4	1.1	0.0	-1.0	-1.7	-4.8
비금속광물제품	14.0	0.3	-2.6	-1.7	0.7	-1.4	-2.8	-5.0	-6.9
1차철강제품	59.4	-0.5	-2.9	-2.9	-1.2	-1.5	-3.2	-7.0	-10.6
1차비철금속제품	39.3	-2.1	-2.4	-1.6	6.2	-8.7	-10.8	-11.9	-6.4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154.6	1.0	-2.7	-2.8	-0.7	5.2	4.6	0.1	-4.2
자 본 재	98.6	0.8	-2.0	-0.7	0.4	4.9	5.0	2.1	-1.0
소 비 재	66.5	-1.4	-3.0	1.3	1.7	2.6	1.6	1.5	0.2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차기 정부에 바라는 농업정책

○ 농가 부채해결을 위한 공약 발표해야

- 이번 대선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특히 늘어나는 부채에 허덕이는 농업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농가 부채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어야함.<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촌에 모든 지원이 융자지원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이 금리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실정임. 차기 정부에는 농민들이 빚 걱정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 융자 부담을 대폭 낮춰주길 바람. <전남 순천, 김종근>

○ 농업계 학교 양성하여 후계인력 확보, 유통구조 개선

- 차기정부는 실질적인 농업교육과 농업계 학교를 양성하여 후계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또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함. FTA로 피해대책과 고령화된 농촌 여건들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도 절실함.<경남 김해, 김병철>

○ 농업예산 집행 관리 철저, 자연재해 피해보상 법제화

- 차기정부는 첫째, 농업관련 부서의 장을 농업에 대한 열정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 맡겨야 함. 둘째, 농업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결과는 신통치 않은 일이 대다수임. 셋째, 농민이 농사만 열심히 지어 수확하면 판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유통체계를 잘 갖춰져야 하며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값이 폭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함. 넷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제화해야함. <경남 통영, 이현순>

○ 수입농산물 대처와 농가 소득안정 주문

- 대다수 농업인들은 차기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농업정책으로, 개방확대에 따라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음. 또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음.<전남 화순, 나종주>

□ 쌀·과일 수확 현황

- 올해는 폭염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쌀 작황이 좋지 않았음. 10월 들어 다행히 일조량이 많아졌으나 경기지역은 전반적으로 쌀 수확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관계당국에서 쌀 수확량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임.<경기 남양주, 김용덕>
- 화순지역에서는 쌀의 경우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감도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전남 화순, 나종주>
- 순천지역 쌀 농사는 올해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떨어지고 미질도 안 좋은 편임. 과수 역시 수확량과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됨.<전남 순천, 김종근>
- 김해시는 지난 태풍에 큰 피해가 없어 단감 같은 경우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확량이 될 것으로 보고 단감 시세는 작년보다 다소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임. 대체로 과일은 수확에 손실이 없음. <경남 김해, 김병철>

□ 기타 농업·농촌관련 여론

○ 농작물재해보험 사과와 배 2차 피해도 보상해야

- 올해 3개의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곳이 많음. 기장지역은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태풍피해와 혹성병이 심한 곳도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책자를 보면 사과나 배는 낙과를 보고 감은 잎을 보고 피해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나 배도 잎이 떨어지면 낙과피해 못지않은 피해가 있음.

- 태풍으로 잎이 떨어지고 낙과하여 나무가 상하게 되면 나무 스스로 살기 위해서 꽃눈의 꽃을 피워 새 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2~3년 정도 2차, 3차 피해를 보게 됨. 이런 피해는 재해보험의 보상 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사과나 배의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도 필요함. <부산 기장, 최시훈>

○ 수확철 농산물 도난 잇따라...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조치 필요

- 요즘 농촌에서는 농산물 수확이 한창임. 가을 날씨가 좋아 가을걷이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애써 거두어들인 농산물이 낮이며 밤이며 사라지고 있음. 낮에 일하는 틈을 타서 고추나 마늘 등이 없어지는가 하면, 밤에는 도로가에 넣어놓은 벼도 심심찮게 도난당하고 야산에 메어놓은 염소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
- 일 년 내 모진 고생과 정성을 들여 가꾼 농산물이 통째로 도난당해 농민들은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안관계 기관에서 농산물 수확기 한철만이라도 농촌에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해 주고 주요 농로 또는 마을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도와주길 바람.<충남 부여, 최영호>

○ 예측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 필요

- 작년 이맘때는 배추와 무가 많이 보였는데 올해는 배추와 무를 보기가 힘든걸 보면 김장철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농사를 많이 짓다보면 농산물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어느해는 여름무를 해서 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다음해에는 가격이 워낙 떨어져 무 30톤을 땅에 그대로 묻기도 하였음. 씨앗값도 거름값도 품값도 몽땅 날아가 그 후로 여름무를 아예 재배하지 않고 있음.
- 예측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보다 정밀한 수급전망과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강원 강릉, 송인숙>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0월 15일~19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백수피에 버 잠정등의 수매 확대

정부 잠정등의 버 매입 우선지급금 기준

구분	1등급 (78%, 40kg, 조곡)	등외A (58%, 30kg)	등외B (50%, 30kg)	등외C (40%, 30kg)
우선지급금 (포대당가격)	4만9,000원	2만7,320원	2만3,550원	1만8,840원

- 농식품부, 10.12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백수 피해농가를 위해 이미 결정한 잠정등의 'A(제현율 58% 이상)·B(제현율 50% 이상)' 외에 추가로 제현율 40% 이상을 '잠정등의 C규격'으로 신설, 농가 희망량 전량 매입하기로. 잠정등의 C의 제현율 40%는 쌀로서 활용 가능성과 콤바인 수확 가능성을 고려한 최저 수준의 제현율로, 백수 피해농가를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조치. 잠정등의 버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급 가격을 산정한 후 제현율을 감안해 확정. 건조벼 기준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단량으로 매입하며, 공공비축미 포대벼 매입이 시작되는 10.22일부터 백수 피해 버 잠정등의 규격도 매입 시작할 예정

자료 : 농민신문(2012.10.15).

□ 비소 논란 미국산 쌀 판매 재개

- 미국 내 발암물질 비소 파문으로 판매와 입찰이 중단됐던 국내 미국산 쌀 유통이 10.12일부터 정상화. 정부, 미국산 쌀 무기비소 검출과 관련, 농촌진흥청을 통해 비소함량을 정밀 분석한 결과 총 비소는 0.064~0.132mg/Kg(ppm), 무기 비소는 0.052~0.092mg/Kg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명. 이에 따라 정부는 9.21일 미국산 쌀 비소 검출 소식이 전해진 후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미국산 쌀에 내렸던 판매 및 입찰 잠정중단 조치 해제

※ 앞서 9월 중순 미국 소비자협회 <컨슈머리포트>는 200여종의 미국 쌀제품을 조사한 결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무기비소가 최대 8.7 μ g/마이크로그램, 1회 섭취 기준) 검출됐다고 밝혀 파문

※ 무기 비소 함유 기준 중국 0.15mg/Kg으로 유일하며 코덱스(Codex, 국제 식품규격 위원회)에서는 0.2mg/Kg으로 논의 중

자료 : 농민신문(2012.10.15), 한국농정신문(2012.10.15)

□ 골든시드프로젝트 ‘도마위’

-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과 수출용 종자 개발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든시드프로젝트(황금의 가치가 있는 종자를 개발)가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 ‘골든시드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19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B/C비율(경제적 타당성)이 1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함. 벼의 경우 0.49에 불과했고 옥수수(0.19), 감자(0.32), 수박(0.4), 감귤(0.01). 배추(1.15), 양파(0.92), 양배추(1.13) 등만 경제성이 확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B/C비율이 1 이하면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기각되는데 이번 예비타당성 결과 종합 B/C는 0.95. 이도 당초 8,100억 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를 4,910억 원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예산대로라면 B/C비율이 0.64. 이에 대해 농식품부, “인력 창출, 로열티 절감 등 기타 부가가치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설명

자료 : 농민신문(2012.10.17)

□ “한·육우 사육마릿수 통계, 이력제 자료로 대체할수도”

- 한·육우 사육마릿수를 놓고 통계청 발표치와 농식품부의 쇠고기이력제에 등록된 수치가 큰 차이를 보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본지 지적과 관련해 통계청,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한·육우 사육마릿수 통계를 쇠고기이력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 한·육우 사육마릿수를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대체할 경우 정부의 한우 산업 관련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

※ 농식품부의 쇠고기이력제에 전산 등록된 한·육우 사육마릿수와 통계청 조사자료를 비교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34만 7,000 ~ 39만 3,000마리나 차이 발생

자료 : 농민신문(2012.10.19)

□ 4대강변 조사료 생산 길 열렸다

- 정부가 4대강 하천변에 유채 등 경관용 식물 재배를 시범적으로 허용,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 사육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시범사업은 ▲금강(부여) ▲영산강(나주) ▲낙동강(밀양·창녕) 등 3개 하천변의 4개 지역에서 55ha 규모로 실시되며,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관리사무소가 사업을 주관함. 경관·환경 시범사업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비료·농약·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경관식물을 관리한 후 잔류물을 수거해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축산업계는 이러한 조치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함.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둬 본사업 대상면적이 늘어나면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도 증가해 소 사육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 농민신문(2012.10.17)

□ “친환경농산물 이대론 안된다”, 어위표시 등 위반 급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9년 1,871건, 2010년 2,975건에서 2011년 9,15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됨. 올해도 8월 말 현재 4,490건이 적발됨. 위반 유형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각한 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에서도 잔류농약이 검출. 이처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숨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옴. 현재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아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짐. 인증취소 및 고발 후 재인증 신청건에 대해 이력

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난립도 문제**로 지적됨.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업 선진국인 독일보다 3.5배나 많은 71곳**에 달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인증기관과 대상 농가에 대한 독일의 엄격한 기준처럼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 : 농민신문(2012.10.19)

□ 귀농·귀촌 예산 큰 폭 증가

- 농식품부, 10.17일, 그동안 타 사업예산으로 운영되던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내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설**되며 **예산도 639억 원('12년) → 812억 원('13년) 증액**. 세부 사업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26억 원('12년) → 41억 원('13년)으로 57.8% 증,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사업: 13억 원('12년) → 21억 원('13년) 62% 증▲농업 창업 아카데미사업**: 45억 원 순증, ▲이 외 농업이차보전사업인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600억 원('12년) → 700억 원('13년) 17% 증

※ 도시민 대상 농촌체험 지원, 빈집 임대 운영, 창업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등
 ※※ 권역별로 체계적인 귀농귀촌 창업과 새로운 지역리더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며 작목재배기술, 품질관리, 유통·판매, 농촌관광 등 실제 정착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0.17)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 본 자료는 10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조사 개요

○ 실측조사

- 표본수: 약 7,000개 표본구역
- 조사기간: 2012. 9.15 ~ 9.21

○ 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현백률)의 현실화: 92.9% → 90.4%(12분도)

- 시계열 유지를 위해 일관되게 적용하여 오던 현백률 92.9%를 2011년부터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현백률인 90.4%로 변경

□ 단위면적(10a)당 생산량

○ 단위면적(10a)당 예상 생산량은 481kg으로 전년(496kg) 대비 15kg(-3.0%) 감소

- 10a당 생산량: (평년)500kg, ('11)496 → ('12)481kg
- 조정 현백률(90.4%) 적용시: (평년)486kg, ('11)482 → ('12)468kg

○ 분얼기¹⁾부터 수잉기²⁾에 생육에 알맞은 강우량과 일조시간 증가로 포기당 이삭수 증가

- ※ 분얼부터 유수형성 및 수잉기까지 기상(기상청)
 - 일조시간: ('10) 409.3 → ('11) 367.7 → ('12) 462.4시간
 - 강 우 량: ('10) 449.8 → ('11) 1,024.6 → ('12) 478.7mm
- ※ 포기당 유효이삭수: ('10) 18.6 → ('11) 17.7 → ('12) 19.3개

○ 출수기 및 등숙 초기에 8월 말 태풍(볼라벤, 덴빈)의 영향으로 전남, 전북, 충남 지역에서 **백수피해 발생**

- 1) 분얼기: 가지치는 시기이며, 6월 상순~7월 상순임
- 2) 수잉기: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7월 상순~8월 상순임

※ 피해구역 비율: ('10) 29.1 → ('11) 14.2 → ('12) 26.0%

※ 이삭당 완전 낱알수: ('10) 71.5 → ('11) 78.4 → ('12) 71.9개

○ 그러나 등숙기에 일조시간 증가 등 후기 기상여건의 호전으로 감소폭 축소

- 등숙기 기상(기상청)

※ 일조시간: ('10) 143.2 → ('11) 111.5 → ('12) 162.0시간

※ 강 우 량: ('10) 260.5 → ('11) 70.2 → ('12) 256.4mm

□ 쌀 예상 생산량

○ 금년 쌀 예상생산량은 4,074천 톤으로 전년(4,224천 톤) 대비 150천 톤(-3.6%) 감소

- 총 생산량(현백율 92.9%): ('11)4,224 → ('12)4,074천 톤(-3.5%)

- 조정 현백율 90.4% 적용 시: ('11)4,110 → ('12)3,965천 톤(-3.5%)

○ 재배면적(-0.5%) 및 단위면적당 생산량(-3.0%) 감소로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평년 대비 3.8% 각각 감소

- 재배면적은 논 면적 감소, 논벼보다 소득이 높은 밭작물 재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0.5% 감소한 849천ha로 나타남.

<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

구분	평년	'07	'08	'09	'10	'11	'12	전년비 (%)	평년비 (%)
총생산량(천톤)	4,237	4,408	4,843	4,916	4,295	4,224	4,074	-3.5	-3.8
10a당생산량(kg)	500	466	520	534	483	496	481	-3.0	-3.8
재배면적(천ha)	(849)	950	936	924	892	854	849	-0.5	-

* 평년 10a당 생산량 : 최근 5년 중 최고와 최저 수량을 제외한 연도의 평균 생산량

* 현백율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생산량임

○ 도별 쌀 예상생산량은 충남(802천 톤), 전남(729천 톤), 전북(627천 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